

『피부색 크레파스』 독후 활동지



데시레 벨라-로베데 글 | 리디아 음바 그림 | 유아가다 옮김
두레아이들 | 13,000원 | 1-2학년 창작동화

“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배려를 길러 주는 책

”

1. 여러분의 크레파스 중 가장 많이 닳아 있는 색은 무엇인가요?
그 색으로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색칠하나요?

2. 표지 속 다양한 색의 크레파스 중, '피부색 크레파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표지 속의 크레파스들이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책의 내용을 상상해 봅시다.

활동2 내용 정리하기

1. 아이들이 책상에 앉자 크레파스들은 너도나도 앞다투어 상자의 맨 앞줄에 서려고 했어요. 모두 가장 먼저 선택되는 색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살구색 크레파스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2. 선생님은 아이들이 그린 가족사진을 붙여 놓고 나서,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나요?

3. 세상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살구색 크레파스는 바깥세상을 모험하게 되지요. 살구색 크레파스는 그곳에서 어떤 것들을 보았나요?

활동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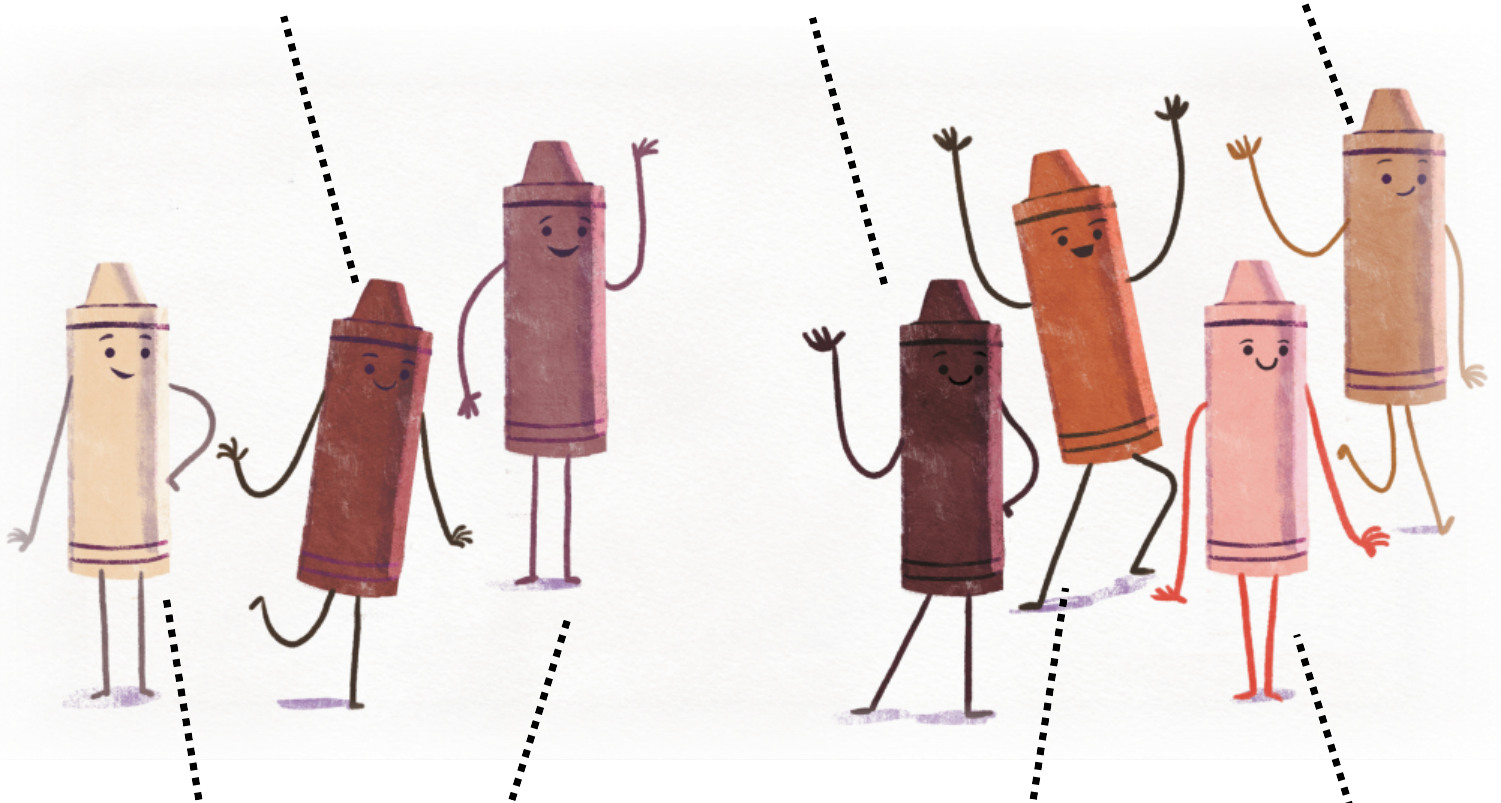
색깔의 새로운 이름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들 피부색이 서로 다르기에 그림도 다르게 그려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아래 그림의 크레파스들은 모두 '살색'이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모든 크레파스의 이름이 '살색'이라면 너무 헛갈릴 거예요.

이 크레파스들에게 각자 다른 멋진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해 질 녘 어스름한 색



Four empty rectangular boxes for writing names, arranged in a row at the bottom of the page.

활동4

다름 자랑 대회

남과 다르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일까요?

남과 다르다는 것은 나만이 가진 특별한 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진 어떤 점이 남과 다른가요? 커다란 사마귀, 새까만 피부... 뭐든지 좋아요.
이번에는, 그동안 조금은 부끄러웠던 나의 다름을 친구들에게 맘껏 자랑해 보세요.



학년 반
이 름

위 어린이는 남들과 다른

을 가지고 있어 세상에서 하나뿐인
아주 특별한 존재이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활동5 인상파 화가처럼

하늘은 무슨 색일까요? 아마 다들 '하늘색'이라고 대답하겠지요. 그런데 여기 이 그림을 보면 하늘은 여러 가지 색이에요. 분홍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네요.



모네의 <인상, 해돋이>(Impression, soleil levant, 1872,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클로드 모네,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입니다. '인상주의'란, 자연이 작가에게 주는 순간적인 인상을 작품에 표현하려는 미술의 한 기법을 말합니다.

빛과 함께 순간순간 움직이는 색의 변화에 특히 주목하지요.

색깔에 정해진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은 무슨 색일까요? 이번에는 직접 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대답해 봅시다.

세상의 색깔은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합니다.
우리도 인상주의 화가가 되어 순간의 빛을 포착하여 그림을 그려 봅시다.
하늘, 바다, 숲, 사람의 얼굴 등 다채로운 색을 가진 것을 떠올려보고
여러분이 보고 느낀 그대로의 색채로 자유롭게 표현해 봅시다.

